

“칸 영화제 두 번이나…살면서 가장 뿌듯”

〈‘불한당’ ‘비상선언’〉



“첫 작품 ‘해품달’ 겁도 없이 연기 이제 연기의 무게·부담감 깨달아 칸에서 박수 받던 순간 떠올리며 마음 다잡고 동료·후배들과 경쟁 한국배우에 자부심…계속 커갈 것”

‘연기들 대표주자’.

배우 임시완(34)이 가진 수식이다. 앞서 거둔 성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2013년 영화 ‘변호인’으로

1000만 관객을 모았고,

2017년 영화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과 지난해

‘비상선언’으로 칸 국

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두 번이나 밟았다.

‘연기들’로서는 유

일하다. tvN ‘미

생’, OCN ‘타인은

지옥이다’ 등 주

연 드라마들도

종영한 지 한참

지난 지금까지

회자될 만큼 꾸준

히 인기다.

2012년 MB

C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연기

를 시작한 지 올

해로 10년째. 이제

는 9인조 보이그룹 제국의아이들 멤버가 아닌 배우로서 대중에 더욱 알려져 있다. 최근 화상으로 만난 임시완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매 순간 도전해 온 덕분”이라고 지난 10년을 돌아봤다.

● “새 시도는 늘 매력적”

25일 종영한 MBC 드라마 ‘트레이서’는 임시완이 10년간 해온 ‘도전’의 궤와 맞닿아있다. 골칫거리 세금 관련 사건들을 도맡아 ‘쓰레기하치장’으로 불리는 국제청 조세5국의 탐장 활동주를 맡았다. 능글능글하고 막무가내인 캐릭터를 연기하며 그동안 안방극장에서 주로 선보인 부드러운 이미지를 깨부렸다.

“생각지 못한 저의 모습을 자주 발견했어요. 즉석에서 애드리브도 하면서 현장을 즐겼죠. 시청자들도 드라마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긴 것 같아 뿌듯해요. ‘킹받는다’(화나는데 웃긴다는 뜻의 신조어)는 시청자 댓글을 보며 함참을 웃었어요. 새 시도는 늘 매력적이고, ‘트레이서’도 그래서 참 만족스러워요.”

도전을 거듭하며 “연기의 무게와 부담감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 천직인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했던 10년 전 첫 드라마 촬영현장”과는 확실히 달라졌다.

“‘해를 품은 달’을 연출한 김도훈 PD님께서 ‘여기 있는 모두가 주연’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라는 의미였는데 주·조연 차이도 몰

랐던 저는 ‘아, 내가 주연이구나!’한 거예요. 하하하! 덕분에 어떤 캐릭터를 만나도 주연 못지않은 책임감으로 연기해왔어요. 그 마음가짐이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한 가지예요.”

● “칸에 꼭 다시 가고파”

칸 국제영화제에서 박수를 받은 순간을 “살면서 가장 뿌듯한 일”로 꼽는다. 요즘도 “그날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한다.

“서로 언어와 생김새가 전부 다른, 심지어 저를 알 턱이 없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박수를 쳐주는 게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시청률이나 관객 수를 뛰어넘는 만족감이 있어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경험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어딜 가든 당당하게 자랑해요. 앞으로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연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덕분에 수많은 아이돌 출신 배우들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자신이 많은 선배와 호흡하며 성장했듯이 “또래 동료들, 후배들과 펼칠 선의의 경쟁”을 기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기의 기준이 상향 평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해요. 나이가 어려도 연기가 출중한 배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배우로서 자부심이 정말 커요.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돼요. 건강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임시완은 노력파다.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연기자로 우뚝 서기까지 고비도 많았지만 매 순간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덕분에 ‘대표 연기들’이라는 타이틀로 주연자리를 꿰차고 있다. 사진제공 | 플럼에이전시

엠넷 ‘퀸덤2’, 효린·우주소녀 등 6팀 경연 ‘2022 최고의 걸그룹’ 놓고 자존심 대결



브레이브걸스와 우주소녀(왼쪽부터)가 엠넷 ‘퀸덤2’ 오프닝쇼를 통해 ‘걸그룹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제공 | 엠넷

가요계에서 정상을 차지했던 걸그룹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존심 내건 경쟁을 시작한다. 31일 밤부터 방송하는 엠넷 경연프로그램 ‘퀸덤2’에서 씨스타 출신 효린, 브레이브걸스, 비비지, 우주소녀, 이달의소녀, 케플러 등 여섯 팀이 출현해 무대에 오른다.

‘퀸덤2’는 이들이 동시에 싱글 음반을

내고 퍼포먼스 경쟁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소녀시대의 멤버 태연과 개그맨 이용진이 MC로 나선다.

이들은 첫 방송에 앞서 하루 전인 30일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제작발표회를 열고 저마다 프로그램 출연 계기를 밝힌다. 특히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음악 순위프로그램과 음원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했던 이들이었기에 신인 위주로 출연하는 경연 프로그램 무대에 오른다는 사실만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들의 첫 만남을 프로로그 형태로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자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들 여섯 팀 가운데 누가 2022년 최고의 걸그룹 자리에 오를지 벌써 시선을 끌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파친코’ 배우 진하, 불법촬영·성희롱 사과



진하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에서 윤여정의 손자 역할을 맡은 한국계 미국인 배우 진하가 과거 한국 할머니들을 불법 촬영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죄했다. 진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26일 “제 행동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진하는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온라인에 한국 중년·노년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90여 장과 성희롱적인 글을 올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로 이 같은 내용이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음악감독 방준석 별세…문화계 추모 잇따라



방준석

52세를 일기로 별세한 밴드 유엔미블루 출신 방준석 영화 음악감독을 추모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고인은 몇 년 전 위암 투병을 이어오다 26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비보를 접한 배철수·윤종신·크라잉넛 한경록 등 동료 선배 음악인들은 SNS에 글과 사진을 올리며 고인을 추모했다. ‘라디오스타’부터 ‘자산어보’까지 8편의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준의 감독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빈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28일 오후 3시 30분이다. 장지는 미국 뉴욕주 켄시코 가족공원묘다.

개리 “힙합 듀오 리쌍 재결합설 사실무근”

래퍼 개리가 힙합 듀오 리쌍의 재결합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리쌍의 재결합 및 새 앨범 발표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26일 개리가 자신의 SNS에 “사실무근, 해체됨”라는 글을 올리며 부인했다. 지난달 길은 SNS에 “리쌍이 20주년을 맞이했다. 기분 좋게 무엇이든 시작해보려고 노력 중”이라는 글을 올리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2002년 결성된 리쌍은 ‘광대’ ‘발레리노’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2015년 싱글 ‘주마등’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멈췄으며 2017년 소속사 리쌍컴퍼니도 폐업했다.

예능도 접수…왜 고두심, 고두심하는지 알겠네

채널A 예능 ‘고두심이 좋아서’ 화제 직접 섭외·개인사 봉인해제 등 어필 시청자들 “국민엄마다운 매력 돋보여”



배우 고두심이 최근 방송가 ‘시니어(노년) 예능’ 붐에 합류했다. 채널A·LG헬로비전 예능프로그램 ‘고두심이 좋아서’를 통해 색다른 여행을 공개하며 잔잔한 따뜻함을 자아내고 있다.

13일 방송을 시작한 ‘고두심이 좋아서’는 그가 지인과 함께 여행하는 과정을 담는다. 그동안 좀처럼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하지 않았던 고두심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변화를 선보인다.

50년간 우정을 나눴은 이계인, 2013년 KBS 2TV 드라마 ‘미래의 선택’에서 엄마와 딸로 호흡을 맞춘 윤은혜 등 출연자를 직접 섭외했다. 1976년 결혼했다 1998년 이혼한 전 남편과 관련된 일화 등 숨겨진 개인사도 담담히 풀어놓는다. 바쁜 일정을 쪼개 지난달부터 매주 2박3일가량 지방을 돌며 촬영하고 있다.

고두심의 활약은 ‘시니어 예능’ 열풍에 힘입어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김영옥, 나문희 등 노년 스타들이 채널S ‘진격의 할머니’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나서면서 이 같은 흐름을 형성했다. 시청자들은 “노림의 미학” “국민엄마다운 따뜻한 매력이 돋보인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4월 9일 첫 방송하는 tvN 새 토일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하며 안방극장에서 서도 베테랑의 면모를 과시한다. 자신의 고향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6살 손녀를 홀로 키우는 할머니로 등장한다. tvN ‘디어 마이 프렌즈’ 등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각으로 그려온 노회경 작가의 신작이다. 이병헌, 신민아, 차승원, 이정은 등 톱스타들과 함께 주연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고두심이 예능프로그램 ‘고두심이 좋아서’를 통해 후배 연기자 윤은혜(왼쪽부터)와 여행을 떠나 사는 아기를 풀어놓는다. 사진제공 | 채널A·LG헬로비전

마약·동성애…‘금기의 벽’을 넘은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소년비행’ ‘수리남’ ‘모럴센스’ 등 파격 소재 다루며 TV와 차별화 연출자들 표현 수위 보장돼 선호

TV드라마에 비해 소재와 표현 수위의 선택이 자유로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금기’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있다. 지상파는 물론 비지상파 방송에서도 꺼렸던 마약이나 성 관련 소재를 잇달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25일 공개된 KT의 OTT 시즌 오리지널 ‘소년비행’은 마약을 메인 소재로 삼았을 뿐 아니라 주인공을 10대 고등학생으로 설정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 마약 운반책 일을 하던 소녀와 함께 대마초의 원료인 대마를 직접 키우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연출자인 조용의 감독은 이 같은 설정에 대해 “보여주기식 과한 표현을 하지 않으려 했다”면서 “처해진 상황 안에서 인물들이 해결해야 할 일들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한인 마약왕의 실화를 그린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을 올려 선보인다. ‘공작’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등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이 연출하고 하정우·황정민·유연석·조우진 등 충무로 대표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작품으로,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을 다룬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나르코스’와도 비교되고 있다.

‘수리남’ 관계자는 “OTT가 없었다면 제작되기도 힘들었을 소재”라고 귀띔했다. 기존 안방극장에서도 낯익은 로맨스물도 OTT를 무대로 대담한 표현에 나섰다. 올해 초 공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모



OTT에서는 소재와 수위, 표현의 제한이 없다. 10대 고등학생이 마약을 운반하는 시즌 ‘소년비행’과 마약왕의 이야기를 다룬 ‘수리남’(왼쪽부터)이 넷플릭스를 통해 올려 공개된다. 사진제공 | 시즌·넷플릭스

럴센스’는 구속(Bondage), 지배(Dominance), 굴복(Submission), 피학(Masochism)

m) 등 가학적 성적 취향을 통틀어 일컫는 ‘BDSM’ 원작 웹툰을 따랐다. 소수의 성적 취향을 가버른 로맨티 코미디 장르와 결합해 화제를 모았다.

폭행·갑금·고문 등을 다룬 파격적 교수 위 BL(Boy’s Love·남성 동성애 코드)의 로맨스물 웹툰 ‘킬링 스토리’도 드라마로 나온다. 12~15세 시청가 등급의 기존 BL물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작품을 예고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모든 연령대에 전면 개방돼 심의의 제한을 따를 수밖에 없는 탓으로 소재의 폭이 좁고 표현 수위에 대한 제약이 심한 기존 방송채널보다는 심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OTT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현재 OTT 콘텐츠는 방송법이 아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다. 한 OTT 관계자는 “드라마 연출을 꺼렸던 영화 연출자들이 OTT 시리즈물을 선택하는 것도 OTT 플랫폼이 영화만큼 소재 선택의 자유와 표현 수위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